

# 백제 건국신화의 연구\*

- 일본의 도모신화를 중심으로 한 고찰 -

김화경\*\*

## || 차례 ||

- I. 머리말
- II. 일본에 남아 있는 도모신화
- III. 중국 사서의 백제 건국신화
- IV. 주몽 신화와의 관계
- V. 온조·비류 신화와의 관계
- VI. 맺음말

### 【국문초록】

백제의 건국신화로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전해지는 온조 신화 이외에 중국의 『수서(隋書)』와 『북사(北史)』에 실려 있는 ‘구태(仇台) 신화’, 그리고 일본의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실려 있는 ‘도모(都慕) 신화’ 등이 있다. 본고에서는 이 도모신화가 백제왕의 후손들 사이에 전승되던 자료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것을 백제 건국신화의 원형으로 상정하고 중국의 자료를 이용하여 그 원래의 형태를 재구하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백제 건국신화는 ㉠ 비정상적인 탄생과 ㉡ 고난과 고난의 극복, ㉢ 시련과 시련의 극복, ㉣ 건국, ㉤ 능력의 인정, (6) 나라의 융성 등 6 개 단락의 순차적 구조로 이루어졌을 것이란 추정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도모신화는 부여의 동명 신화와 같은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고구려의 건국에 얽힌 주몽 신화는 부여의 동명 신화와 같은 계통이면서도,

\* 본 논문은 2010년 영남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그 집권세력이 남하할 때에 고아시아의 일족이었던 코리악족의 영향을 받아 난생신화로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온조와 비류 신화는 그 편찬자인 김부식의 중세적 합리주의 사고로 변화되었을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곧 전자는 백제의 왕들이 온조를 건국의 시조로 하면서도 동명묘(東明廟)를 세우고 거기에 참배했던 것을 근거로 온조를 주몽의 아들로 기술된 것이고, 후자는 왕실의 혈통을 북부여와 연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기술되었다는 것이다.

주제어 : 건국신화, 온조 신화 동명 신화, 도모 신화, 주몽 신화, 삼국사기.

## I. 머리말

『삼국사기』에 남아 있는 온조(溫祚) 신화와 비류 신화는 다른 나라의 건국신화들이 지니고 있는 건국주의 비정상적인 탄생 모티프가 결락되어 있다. 그리하여 이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의미하는 ‘설화(說話)’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였고,<sup>1)</sup> 또 신화의 옷을 제대로 입지 못했다는 극단적인 지적이 행해지기도 하였다.<sup>2)</sup> 그렇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백제의 건국신화가 지니는 본래의 특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 연구는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온조와 비류에 얽힌 전승을 서구의 신화적 개념<sup>3)</sup>으로 파악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

1) 이종욱은 백제의 경우에 ‘건국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건국설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종욱, 『한국사의 1막 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2004, pp.162-201.

2) 최래욱은 “백제의 건국 영웅은 다른 영웅들처럼 신비로운 신화의 옷도 입지 못하고 범상한 인물로 드러난다.”고 하였다.

최래욱,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2,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1982, p.126.

3) 각 민족들은 제각기 자기들 문화의 독특한 분류체계, 곧 에스닉 장르(ethnic genre)

백제의 건국신화는 『삼국사기』에 실려 있는 것들 이외에도 중국의 『수서(隋書)』나 『북사(北史)』에 전해지는 ‘구대 신화’가 있고, 또 일본의 『속일본기(續日本紀)』에 전해지는 ‘도모 신화’ 등이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한 연구들은 이들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삼국사기』 소재의 이야기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파생되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그런데 이들 백제 건국신화는 그것이 실린 전적(典籍)에 따라 얼마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서 편찬자들의 역사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제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꾸어 말하면 중국의 사서에 정착된 백제 건국신화들은 편찬자가 수집한 백제의 전문(傳聞)을 근거로 하였다는 것이고, 한국의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자료는 김부식이 이 책을 편찬할 때에 가졌던 역사적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이다. 또 일본의 『속일본기』에 실려 있는 것은 백제왕의 후손들 사이에 전승되던 자료들이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이들 신화가 전해지는 전적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일본의 『속일본기』에 기록된 도모신화는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다른 자료들이 전부 전문(傳聞)이나 남아 있던 사료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백제 왕실의 후손들 사이에 전승되던 자료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도모 신화는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계보(系譜)가 시조의 신성한 탄생으로부터 연원되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도모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이본들과의 관계를

---

를 가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는 설화를 신화나 전설, 민담으로 구분했던 것이 아니라, ‘옛날이야기’라는 범주에 전부 포괄하였었던 것 같다.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pp.17-86.

살펴봄으로써, 백제의 건국신화가 지니고 있던 원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는 문제를 구명하려고 한다. 환언하면 본 연구는 일본에 남아 있는 도모 신화를 바탕으로 하고, 중국에 잔존하는 자료의 보완을 통해서 백제 건국 신화의 내용을 재구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이와 같은 연구가 전혀 수행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노명호(盧明鎬)의 『백제의 동명 신화(東明神話)와 동명 묘(東明墓)』<sup>4)</sup>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깊은 고찰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최광식(崔光植)의 『백제의 신화와 제의』<sup>5)</sup>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있었다. 하지만 전자는 백제 건국신화의 이본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밝히려는 것이 아니라, 구대 신화에 차용된 ‘동명 신화(東明神話)’와 백제에서 만들어지던 ‘동명 묘(東明廟)’에 대한 전승에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었다. 또 후자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할 수 있다.

## II. 일본에 남아 있는 도모신화

8세기 무렵에 편찬된 일본의 『속일본기(續日本紀)』 엔라쿠(延曆) 8년 12월 조에는 아래와 같은 도모왕(都慕王)의 탄생신화가 실려 있다.

[자료 1]

황태후의 그 백제 먼 조상이 도모왕(都慕王)인데, (그는) 하백(河伯)의 딸이 해의 정기(日精)에 감응하여 태어났다.<sup>6)</sup>

4)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 동명신화의 재형성 현상과 관련하여』 『역사학 연구』 10, 전남대사학회, 1981, pp.39-89.

5) 최광식, 『백제의 신화와 제의』, 주류성, 2006, pp.21-58.

6) 黒板勝美 編, 『續日本記(後篇)』, 東京, 吉川弘文館, 1979, p.542.

이 자료는 간무천황(桓武天皇)의 황태후(皇太后)인 다카노노니이카사(高野新立) 조상의 시조에 얽힌 이야기이다. 이것은 고구려의 건국주(建國主)인 주몽(朱蒙)의 탄생담과 매우 유사한 모티프로 이루어져 있다. 곧 전 자에는 먼 조상의 부계(父系)가 해의 정기를 의미하는 ‘일정(日精)’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후자에는 “햇빛이 비치었는데 몸을 피하면 햇빛이 또 따라와 비치었다.”<sup>7)</sup>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도모왕이나 주몽이 다 같이 하백의 딸로부터 태어났다고 하는 공통된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sup>8)</sup>

그런데 같은 『속일본기』 엔랴쿠(延曆) 9년 추(秋) 7월 조에 이것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자료 2]

무릇 백제의 시조 도모대왕(都慕大王)은 해의 신(日神)이 강령(降靈)하여 일찍이 부여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천제가 녹부(籙符)를 내렸으며, (그는) 여러 한(韓)을 총괄하여 왕이라 칭하였다.<sup>9)</sup>

이 자료는 백제 제16대 진사왕(辰斯王)의 자손 쓰노무라지 마사미찌(津連眞道)와 제 31대 의자왕(義慈王)의 자손 구타라노고니키시(百濟王) 진테이(仁貞), 구타라노고니키시 겐신(元信), 구타라노고니키시 츠신(忠信) 등이 올린 상소문(上疏文)에 들어있는 그들 조상의 시조신화이다. 그러므로 당시 구타라노고니키시, 곧 백제왕의 여러 후손들은 이와 같은 자기 조상의 시조 전승을 보전하여 왔었다고 볼 수 있다.

어쨌든 이러한 이 신화의 내용은 (1) 해의 신이 강령하여 시조가 되었던

7)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始祖東明聖王 條.

8) 이러한 유사성은 백제의 왕실이 자기들의 시조 신화에 주몽의 그것을 차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고구려 건국신화와와의 관계에서 검토한다는 것을 미리 밝혀둔다.

9) 黑板勝美 編, 앞의 책. p.546.

데, (2) 그는 부여에서 나라를 세웠고, (3) 천제의 녹부를 받았으며, (4) 여러 한(韓)을 총괄하는 왕이 되었다는 네 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이 신화는 자료 1과는 얼마간의 차이가 있다. 즉 자료 1에서는 하백의 딸이 해의 정기에 감응되어 낳은 존재가 도모왕(都慕王)이라고 하였으나, 위의 자료 2에서는 시조 도모대왕은 해의 신(日神)이 강령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에서는 도모왕이 해의 정기가 수신(水神)인 하백의 딸 사이에 태어난 존재라고 한다면, 후자에서는 도모왕 자신이 일신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비록 이와 같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자료 2의 순차적 구조는 건국신화의 전형성을 보여주고 있어, 백제에도 온전한 건국신화가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그런데 일본의 『신찬 성씨록(新撰姓氏錄)』에는 이렇게 시조에 연루된 신화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시조를 도모왕이라고 하는 후손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자료들이 남아 있어, 그것들을 소개하기로 한다.

[자료 3]

- ① 야마토아소미(和朝臣): 출자는 백제국 도모왕 18세손 무녕왕이다.
- ② 구타리아소미(百濟朝臣): 출자는 백제국 도모왕 30세손혜왕이다.
- ③ 구타라키미(百濟公): 출자는 백제국 도모왕 24세손 문연왕이다.<sup>10)</sup>
- ④ 스가노마사미치(菅野朝臣): 출자는 백제국 도모왕 10세손위수왕이다.
- ⑤ 구타라노데히도(百濟伎): 출자는 백제국 도모왕 손 덕좌왕이다.
- ⑥ 후와무라지(不破連): 출자는 백제국 도모왕의 후에 비유왕이다.<sup>11)</sup>

『신찬성씨록』의 이와 같은 전승들은, 8세기 무렵의 일본에는 자신들이 백제의 시조 도모왕의 후손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었음을 나타낸

10)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本文篇)』, 左京諸蕃下 百濟條. 東京, 吉川弘文館, 1981. p.286.

11) 佐伯有清, 위의 책, 右京諸蕃下 百濟條. pp.298-300.

다. 여기에서 그들이 전부 다 자료 1이나 2와 같은 시조 신화를 간직하고 있었는지 어떤지를 확인할 길은 없다. 그렇지만 자료 3의 전승들에서 그들의 시조가 도모왕이었다고 한 것은, 그들도 자료 1의 간무천황(桓武天皇)의 적모(嫡母)나 자료 2의 상소문을 올린 사람들의 시조 신화와 같은 형태의 전승을 가졌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런 의미에서 백제의 왕통을 계승한, 일본 거주의 후손들 사이에는 그 조상의 시조 신화가 전승되고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한국의 고대국가에서 이처럼 왕권을 장악했던 집단의 후손들이 자기들 조상의 시조 신화를 보전하였던 것은 백제만이 아니었다. 5세기에 세워진 광개토대왕의 비문(碑文)에는 왕의 치적을 기술하기 전에 고구려의 시조인 추모왕(鄒牟王) 신화가 기록되어 있고,<sup>12)</sup> 또 『삼국사기』 신라본기 미추 이사금(味鄒尼師今) 조에도 그의 조상인 김알지(金閼智)의 탄생신화가 실려 있다.<sup>13)</sup> 필자는 이러한 예들에 착안하여 『건국신화의 전승 경위』란 논고를 통해, 고대국가에서 왕통을 계승한 집단의 후손들은 그 조상들의 계보를 전승해왔을 것이란 추정을 한 바 있다.<sup>14)</sup>

지배집단의 이와 같은 조상들의 계보 전승에 대해, 마쓰바라 도시다카(松原孝俊)는 “문헌자료에서 인정하는 왕족의 계보는 출자(出自) 상 왕위에 오를 가능성을 가진 자들이 왕위 계승법을 정하고, 안정적인 정치지배를 실행하기 위해서 이른바 기존의 상황 설명 내지는 근거의 제공에 이용하고, 또 지배자로부터 피지배자를 향해 지배의 유래를 이야기하는 일종의 미디어”<sup>15)</sup>로 보았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러한 시조 전승이 왕권의 메커니즘만을 강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상을 숭배하면서 뿌리를 찾겠다고 하

12) 문정창, 『광개토대왕훈적비문론』, 백문당, 1977. p.47.

13) 『三國史記』新羅本紀, 味鄒尼師今 條.

14) 김화경, 『건국신화의 전승 경위』,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pp.78-79.

15) 松原孝俊, 『朝鮮族譜と始祖傳承(上)』, 『史淵』 120, 九州大學文學部, 1983. p.161.

는 지배계층 특유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상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상정이 가능한 이유로 고구려와 백제, 신라가 제각기 시조묘(始祖廟)를 세우고, 후대 왕들이 직접 그곳에 참배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음을 들었다.<sup>16)</sup>

만약에 이런 추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일본에 전해지던 도모 신화는 백제왕의 후손들이 그들의 시조에 대한 전승을 그때까지 간직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바꾸어 말하면 비록 나라가 망해서 일본에 건너가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였지만, 자기들의 시조신에 대한 전승은 보전하고 있었다고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 일본에 전승되고 있던 백제왕의 시조 신화는 후손들 사이에 전해지던 백제의 건국신화가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sup>17)</sup>

그러므로 도모 신화는 그 전의 전문이나 역사책에 남아 있던 것이 아니라, 후손들 사이에 직접 전승되어 오던 시조 신화였고, 또 백제의 건국신화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신화가 『속일본기』에 기록될 무렵에는 전체적인 윤곽만 드러내는 자료 1이나 2와 같은 내용으로 축약되고 말았다고 하겠다.

### Ⅲ. 중국 사서의 백제 건국신화

위에서 일본의 『속일본기』에 전해지는 도모신화가 백제왕의 후손들 사이에 전승되던 시조의 탄생신화였고, 또 백제의 건국신화였지만, 그 내용

16) 김화경, 위의 논문, p.79.

17) 노명호는 “고대사에 대한 일본의 사승류(史乘類)는 국제적 관계에 대한 날조가 극히 심해 사료로 이용함에 있어서는 물론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여기(『속일본기』를 가리킴: 인용자 주)에서의 백제 동명 신화(東明神話)는 그같이 날조할 동기가 없으므로 백제로부터의 전승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다. 노명호, 앞의 논문, p.44.

은 간단하게 축약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구명하였다. 여기에서 이렇게 축약된 백제 건국신화의 원형은 어떤 것이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다시 말해 간단한 형태로 전해지는 백제의 건국신화가 원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국 측 사서에 전해지는 백제의 건국신화 자료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자료 4]

백제의 선대는 고려국(高麗國)에서 나왔다. 그 나라 왕의 한 시비(侍婢)가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되어 왕은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 시비가 말하기를, “달걀같이 생긴 물건이 나에게 내려와 닿으면서 임신이 되었습니다.”라고 하자, 그냥 놓아 주었다. ㉡ 뒤에 드디어 사내아이 하나를 낳았는데, (죽으라고) 뒷간에 버렸으나 오래도록 죽지 않았다. (왕이) 신령스럽게 여겨 기도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東明)이라고 하였다. ㉢ 장성하자 고려왕이 시기하므로, 동명은 두려워하여 도망가서 엄수(淹水)에 이르렀는데, 부여(夫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 ㉣ 동명의 후손에 구태(仇台)라는 자가 있어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그가) 대방(帶方)의 옛 땅에 처음 나라를 세웠다. ㉤ 한(漢)의 요동 태수(遼東太守) 공손탁(公孫度)이 딸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다. ㉥ 나라가 점점 번창하여 동이(東夷) 중에서 강국이 되었다. 당 초에 백가(百家)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百濟)라고 불렀다.<sup>18)</sup>

이것은 7세기에 위징(魏徵) 등에 의해 편찬된 『수서(隋書)』 동이열전(東夷列傳) 백제 조에 전해지는 자료인데, 여기에 실린 백제의 건국신화는 1세기 정도 뒤에 기록된 『속일본기』의 그것보다 더 자세한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사서의 성격에서 연유된 것이 아닌가 한다. 환언하면 전자는 일본의 사서에 들어 있는 백제왕 후손들의 전승이나 상소문의 일부

18) 『隋書』東夷列傳 百濟 條.

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줄거리로 요약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후자는 백제라는 국가에 대한 사실의 기술에서 그 서두를 장식하는 건국신화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들 두 자료의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간단하게 표를 만든다면 아래와 같다.

『속일본기』의 도모신화	『수서』의 구태신화
㉠ 해의 신이 강령.(비정상적 탄생).	㉠ 시비에게 달걀같이 생긴 물건이 내려와 임신.(비정상인 탄생)
㉡ 없음.	㉡ 버려졌으나 죽지 않아 기르도록 하고 이름을 동명이라고 함.(고난과 고난의 극복)
㉢ 없음	㉢ 동명은 고려왕의 시기로 인해도 망하였는데, 부여사람들이 그를 받들.(시련과 시련의 극복)
㉣ 시조 도모대왕은 부여에 와서 나라를 세움.(건국)	㉣ 동명의 후손 구태가 대방의 옛 땅에서 나라를 세움. (건국)
㉤ 천제가 녹부(籙符)를 내림.(능력의 인정)	㉤ 한나라의 요동태수 공손탁이 딸을 아내로 줌.(능력의 인정).
㉬ 여러 한(韓)을 총괄하여 왕이됨.(나라의 융성)	㉬ 동이 중의 강국 백제가 됨.(나라의 융성)

이 표에 의하면, 『수서』의 구태 신화는 영웅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환언하면 그 순차적 구조가 ㉠ 비정상적 탄생과 ㉡ 고난과 고난의 극복, ㉢ 시련과 시련의 극복,<sup>19)</sup> ㉣ 건국, ㉤ 능력의 인정, ㉬ 나라의 융성 등으로 되어 있어, 전형적인 영웅의 건국 신화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두 자료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곧 『속일본기』의 도모신

19) 본고에서는 생래적(生來的) 비정상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하였고, 비범한 능력으로 인해 초래되는 어려움을 ‘시련’이라고 하여 구분하였음을 밝혀둔다.

화에서는 도모왕이 직접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수서』의 구태 신화에서는 비정상적인 탄생을 한 동명(㉑~㉒)의 후손인 구태가 나라를 세웠다는 것(㉓~㉔)으로 이루어져, 2대에 걸친 이야기로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전자의 축약 과정에서 과생된 것이 아닌가 한다. 바꾸어 말하면 도모왕이 부여에서 세운 나라가 바로 백제였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뒤에 장소를 옮겨 백제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 붙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도모신화에는 또 ㉑와 ㉒의 모티프가 결락되어 있다. 즉 “사내아 이 하나를 낳았는데, (죽으라고) 뒷간에 버렸으나 오래도록 죽지 않았다. (왕이) 신령스럽게 여겨 기르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東明)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고난과 고난의 극복’ 모티프가 없으며, “장성하자 고려왕이 시기하므로, 동명은 두려워하여 도망가서 엄수(淹水)에 이르렀는데, 부여(夫餘)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받들었다.”라고 하는 ‘시련과 시련의 극복’ 모티프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두 모티프가 영웅담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sup>20)</sup> 도모 신화도 이 모티프들을 가졌었다고 보아도 아무런 지장이 없을 것 같다.

한편 이연수(李延壽)에 의해 거의 같은 시기에 편찬된 『북사(北史)』에는 『수서』의 그것보다 더 부연된 백제의 건국신화가 전해지고 있다.

[자료 5]

백제국은 (그 선대가) 대체로 마한의 족속이며, 색리국(索離國)에서 나왔다. 그 왕이 출행 중에 시녀(侍女)가 후[궁(宮)]에서 임신했다. 왕은 환궁하여 그녀를 죽이려고 하였다. ㉑ 시녀는 “앞서 하늘에서 큰 달갈만한 기운이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감응하여 임신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왕

20) L. Raglan, The hero of tradition, *The Study of Folklore*, Englewood Cliffs, 1965. p.145.

은 그 시비를 살려주었다. ㉠ 뒷날 아들을 낳으매, 왕이 그 아이를 돼지우리에 버렸으나, 돼지가 입김을 불어넣어 죽지 않았다. 뒤에 마구간에 옮겨 놓았지만, (말) 역시 그와 같이 하였다. 왕은 (이를) 신령스럽게 여겨 그 아이를 기르도록 명하고, 이름을 동명이라 하였다. ㉡ 장성하면서 활을 장 쏘자, 왕은 그의 용맹스러움을 꺼려, 또 다시 죽이려고 하였다. 동명이 이에 도망하여 남쪽의 엄체수(淹滯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두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동명은 그것을 딛고 물을 건너 부여에 이르러 왕이 되었다. ㉢ 동명의 후손에 구태(仇台)가 있으니, 매우 어질고 신의가 두터웠다. (그가) 처음으로 대방(帶方)의 옛 땅에 나라를 세웠다. ㉣ 한의 요동 태수 공손탁이 딸을 (구태에게) 시집보냈다. ㉤ 마침내 동이 중에서 강국이 되었는데, 당초에 백가(百家)가 건너왔다(濟)고 해서 백제라고 불렀다.<sup>21)</sup>

이것은 『북사(北史)』 열전(列傳) 백제 조에 실려 있는 것으로, 앞에서 살펴본 『수서』의 자료 4와 거의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지 후자에서의 ㉣가 전자에서의 ㉠에서와 같이 기술되었고, 또 ㉤가 ㉡에서와 같이 기술되어 상당히 부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체화된 내용의 이야기로 된 백제 건국신화는 부여의 그것과 매우 흡사한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후한(後漢) 시대에 왕충(王充)이 지은 『논형(論衡)』 길험편(吉驗篇)에 실린 동명 신화(東明神話)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 [자료 6]

북쪽의 이족인 탁리국(挾離國) 왕의 시비가 임신을 하자, 왕이 그 시비를 죽이려고 하였다. (그러자) 시비가 “계란만한 크기의 기운이 있어 하늘로부터 나에게 내려온 까닭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니중에 아이를 낳아 돼지우리에 버렸지만, 돼지가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21) 『北史』列傳 百濟 條.

주어 죽지 않았다. 다시 마구간으로 옮겨놓고 말에 밧혀 죽도록 하였으나, 말들 역시 입으로 숨을 불어넣어 주어 죽지 않았다. 왕은 아마 천제의 자식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의 어머니에게 노비로 거두어 기르게 하였고, 동명(東明)이라 부르며 소나 말을 치게 하였다.

동명의 활숨씨가 뛰어나자, 왕은 그에게 나라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 그를 죽이려고 했다. 동명이 남쪽으로 도망가다가 엄체수(掩漉水)에 이르러, 활로 물을 치니 물고기와 자라가 떠올라 다리를 만들어 주었고, 동명이 건너가자 물고기와 자라가 흩어져 추적하던 병사들은 건널 수가 없었다.

그는 부여에 도읍하여 왕이 되었다. 이것이 북이(北夷)에 부여국이 생기게 된 유래이다.<sup>22)</sup>

이와 비슷한 내용의 부여 건국신화는 3세기에 편찬된 진수(陳壽)의 『삼국지』 위지(魏志) 동이전 부여 조와 5세기에 편찬된 범엽(范曄)의 『후한서(後漢書)』 동이열전 부여 조에도 실려 있다. 하지만 이것들은 위의 자료 6을 전재(轉載)한 것이었을 가능성이 농후함으로, 부여의 건국신화는 가장 먼저 기록된 『논형』의 자료가 기반이 되었다고 보아도 크게 지장이 없을 듯하다.

어쨌든 이 동명 신화는 중국 자료에 남아 있는 백제 건국신화와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후자가 전자와 같은 계통(系統)의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후손들에게 전승되던 백제의 건국신화도 중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논형』에 실린 부여국의 동명 신화와 같은 계통의 전승이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추정은 백제의 왕들이 행한 시조 동명묘(東明廟)에 대한 배알(拜謁) 기록을 통해서도 그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곧 백제에서는 신화에서 그 계통을 같이하는 동명을 그들의 시조로 받들어 모셨다는 것이다.

22) 『論衡』 卷2 吉驗篇.

#### IV. 주몽 신화와의 관계

그런데 『논형』의 이 동명 신화는 지금까지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깊은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왔다. 이런 추정은 일제 강점기 시대에 이루어진 일본 어용학자들에 의해 제시된 것이었다.<sup>23)</sup> 하지만 분명히 부여와 고구려는 별개의 나라였다.<sup>24)</sup> 그러므로 그 건국신화도 구별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래서 6세기에 편찬된 위수(魏收)의 『위서(魏書)』 열전(列傳) 고구려조에는 실려 있는 주몽신화의 내용을 별건하기로 한다.

##### [자료 7]

고구려는 부여에서 갈라져 나왔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선조는 주몽(朱蒙)이라 한다. ① 주몽의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딸로서, 부여왕에게 [잡혀] 방에 갇혀 있던 중, 햇빛이 비치는 것을 몸을 돌려 피하였으나 햇빛이 다시 따라와 비추었다.

② 얼마 후 잉태하여 알 하나를 낳았는데, 크기가 닛 되(升)들이만 하였다. 부여왕이 그 알을 개에게 주었으나 개가 먹지 않았고, 돼지에게 주었으나 돼지도 먹지 않았다. 길에다 버렸지만 소나 말들이 피해 다녔다. 뒤에 들판에 버려두었더니, 못 새가 깃털로 그 알을 감쌌다. 부여왕은 그 알을 쪼개려고 하였으나 깨뜨릴 수 없게 되자, 결국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고 말았다. 그 어머니가 다른 물건으로 이 알을 싸서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사내아이 하나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왔다. 그가 성장하여 자(字)를 주몽이라 하니, 그 나라 속언(俗言)에 주몽이란 활을 잘 쏜다는 뜻이다.

부여 사람들이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탄 뜻을 품을 것이라고 하여 그를 없애버리자고 청하였으나, 왕은 듣지 않고 그에게 말을

23)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80. pp.475-482.

24) 이들 두 국가의 민족 구성원을 구분하려고 한 연구도 있다.

김정배, 『예맥족 연구』, 『백산학보』 5. 백산학회, 1968. pp.3-46.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날마다 남모르게 시험하여 좋은 말과 나쁜 말이 있음을 알고, 준마는 먹이를 줄여 마르게 하고 야윈 말은 잘 길러 살찌게 하였다. 부여왕이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마른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그 뒤에 사냥할 때 주몽에게는 활을 잘 쏜다고 하여 [한 마리를 잡는데] 화살 하나로 한정시켰으나, 주몽이 비록 화살은 적었지만 잡은 짐승은 매우 많았다. 부여의 신하들이 또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꾸미자, 주몽의 어머니가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말하기를, “나라에서 너를 해치려 하니, 너 같은 재주와 경략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멀리 떠나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몽은 이에 오인(烏引)과 오위(烏遼) 등 두 사람과 함께 부여를 버리고 동남 쪽으로 도망하였다. 중도에 큰 강을 만났는데, 건너려 하여도 다리가 없고, 부여 사람들의 추격은 매우 급박하였다. 주몽에 강에 고하기를, “나는 태양의 아들이요, 하백의 외손이다. 오늘 도망 길에 추격하는 군사가 바짝 쫓아오니, 어떻게 하면 건널 수 있겠는가?”라고 하자, 이때에 물고기와 자라가 함께 떠올라 그를 위해 다리를 만들어 주었다. 주몽이 건넌 뒤에 고기와 자라는 금방 흩어져버려 추격하던 기병들은 건너지 못하였다.

주몽은 마침내 보솔수(普述水)에 이르러 우연히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삼베옷을 입었고, 한 사람은 무명옷을 입었으며, 한 사람은 부들로 짠 옷을 입고 있었다. [그들은] 주몽과 함께 흘승골성(紇升骨城)에 이르러 마침내 정착하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인하여 성(姓)을 고씨(高氏)라 하였다.<sup>25)</sup>

이 자료는 중국에 전해지는 고구려의 건국신화로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다. 이러한 이 신화에는 밑줄을 그은 곳에서 보는 것처럼, ①의 일광감응과 ②의 난생 모티프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주몽의 어머니가 시비(侍婢)가 아닌, 수신(水神)인 하백의 딸로 되어 있다. 이것은 고구려의 집권 세력이 그 왕통을 신성한 일광(日光)과 수신에 연결시키는 건국신화를 가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건국신화는 부여의 그것과는

25) 『魏書』列傳 高句麗 條.

명확하게 구별되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이와 같은 두 나라의 건국신화가 가지는 차이는 이들 두 개의 전승을 함께 기록한 『수서(隋書)』의 자료를 보면 더욱 명백해진다.

[자료 8]

고(구)려의 선조는 부여에서 나왔다. 부여왕이 일찍이 하백의 딸을 붙잡아 방 안에 가두자 햇빛이 따라와 비추었는데, 거기에 감응하게 되어 알 한 개를 낳았다. 한 사내아가가 (그 알에서) 껍질을 깨뜨리고 나오니,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부여의 신하들이 주몽은 사람의 소생이 아니라고 하여 모두 죽이자고 청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다. 그가 장성하여 수렵하는데 따라가서 잡는 것이 가장 많으니, 또 그를 죽이자고 청하였다.

그 어머니가 주몽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니, 주몽은 부여를 버리고 동남쪽으로 달아났다. (중도에) 큰 강을 만났는데, 물리 깊어서 건널 수가 없었다. 주몽이 “나는 하백의 외손이고 태양의 아들이다. 이제 어려움을 당하여 (나를) 추격하는 군사들이 곧 뒤쫓아 오는데, 어떻게 하면 건널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들이 모여서 다리를 만들어주어, 주몽은 마침내 건넜으나, 추격하던 (부여의) 기병은 건너지 못하고 돌아갔다.

주몽이 나라를 세워, 스스로 국호를 고구려라 하고, 고를 성씨로 삼았다<sup>27)</sup>

이것은 『수서(隋書)』 동이열전(東夷列傳) 고(구)려 조에 전해지는 자료인데, 앞에서 살펴본 자료 4와의 차이를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26) 김정학도 고구려 건국신화는 부여 시조신화와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았다.

김정학, 『한국 상고사 연구』, 범우사, 1990. p.23.

27) 『隋書』 東夷列傳 高麗 條.

『수서』의 백제 건국신화	『수서』의 고구려 건국신화
㉠ 선대는 고구려에서 나옴.	㉠ 선조는 부여에서 나옴
㉡ 시비에게 달걀같이 생긴 물건 이 내려와 임신하여 동명을 낳음.	㉡ 방안에 갇힌 하백의 딸에게 햇빛이 비치어 알을 낳았고, 그 알에서 주몽이 나옴.
㉢ 없음.	㉢ 수렵을 잘 함.
㉣ 고려왕이 시기하여 엄수에 도달함.	㉣ 부여의 신하들이 죽이려고 하여 도망하여 강에 도달함.
㉤ 없음.	㉤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를 놓아주어 건넌.
㉥ 부여 사람들이 그를 받들.	㉥ 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고구려라 함.
㉦ 그 후손 구태가 대방 옛 땅에 서 나라를 세움.	㉦ 없음
㉧ 요동태수 공손택의 딸을 아내로 맞음.	㉧ 없음.
㉨ 동이 중에 강국이 되고 백제라 함.	㉨ 없음.

이 표에 의하면, 같은 『수서』에 실린 백제의 구태에 얽힌 건국신화와 고구려의 주몽에 얽힌 그것은 별개의 전승이었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곧 전자는 한 시비가 달걀 같은 물건이 내려와 임신을 하였고, 그렇게 하여 낳은 동명의 후손이 세운 나라가 백제였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후자는 수신의 딸 하백이 일광감응(日光感應)에 의해 알을 낳았는데, 그 알을 깨고 나온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는 편찬자가 같은 사서 안에 고(구)려 조와 백제 조에 그 건국신화들을 동시에 실으면서, 의도적으로 구분을 시도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백제 건국신화의 자료들 가운데에서 일광감응이나 난생 모티프를 가진 것들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원래부터 백제와 고구려의 건국신화가 다른 전승이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한다.<sup>28)</sup>

여기에서 고구려의 건국신화에 게재된 난생 모티프의 연원 문제가 제기된다. 지금까지 난생신화라고 하면 남방문화와 관계가 깊은 것으로 생각해 왔다.<sup>29)</sup> 하지만 필자는 현재 캄차카 반도에 살고 있는 코리약족(Koryak)이 난생신화를 가지고 있고, 또 이들이 만주지역 일대에 살았다는 점을 고

28) 이복규, 『부여·고구려 건국신화연구』, 집문당, 1998. pp.14-16.

29) 三品彰英, 『神話と文化史』, 平凡社, 1971. pp.310-408.

려하여,<sup>30)</sup> 부여족이 송화강 유역의 농안(農安)과 장춘(長春) 지역 부근으로부터 길림(吉林) 지역 일대로 이주하면서 이들과 접촉을 가졌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한 바 있다.<sup>31)</sup> 만약에 이러한 가설이 사리에 맞다고 한다면, 고구려는 부여로부터 분화되면서 고아시아족의 이질적인 문화와 접촉하게 됨으로써 난생 모티프의 건국신화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정을 하면서, 원래의 고구려 건국신화는 어떠한가 하는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한국에 남아 있는 고구려 건국신화로 가장 오래된 광개토대왕(廣開土大王)의 비문(碑文)에 기록된 신화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자료 9]

『옛날에 시조 추모왕(鄒牟王)이 기틀을 열었다. 북부여에서 출자하였다. 천제(天帝)의 이들이고, 어머니는 하백(河伯)의 여랑(女郎)이다. 알을 깨고 나왔다. 나면서 성스러웠다. □□□□□□ 명령하여 수레를 타고 남하하였다. 도중에 부여의 엄리대수(奄利大水)를 만났다. 왕이 나무에 이르러 말하기를, 나는 “황천(皇天)의 아들이요, 어머니는 하백의 딸인 추모왕이다. 나를 위하여 갈대를 이어주고, 거북은 물 위에 뜨라.”고 하니, 소리에 응하여 곧 갈대가 이어지고 거북이 물에 떴다. 그런 뒤에 물을 건넜다. 비류곡(沸流谷)의 흘본 서성산(忽本西城山) 위에 도읍을 세웠다.』<sup>32)</sup>

이것을 보면, 고구려 왕실에 전해지고 있던 시조 신화는 분명하게 난생 신화였다. 하지만 원래의 형태가 위의 자료와 같이 축약된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적어도 이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이고 자세하였을 것으로 상정해도 좋을 듯하다. 왜냐하면 이규보(李奎報)가 지은 『동국이상국집(東國李相國

30) 孫進己, 임동석 역, 『東北民族源流』, 동문선, 1992. p.424.

31) 김화경,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pp187-188.

32) 문정창, 앞의 책. p.47.

集』의 ‘동명왕편(東明王篇)’에 “세상에서는 동명왕의 신이한 일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 비록 배운 것이 거의 없는 비천한 남녀들까지도 제법 그에 관한 일을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이다.”<sup>33)</sup>라고 한 것을 보면, 왕실에 전승되던 이야기는 더욱 자세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주몽에 얽힌 건국신화는 부여 계통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난생 모티프를 구비하게 되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고구려와 백제의 신화와도 구별된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따라서 자료 1에서 “하백의 딸이 해의 정기(日精)를 감응하여” 태어난 것이 도모왕이라고 한 것은, 후대에 백제 왕실의 모계(母系)를 높이기 위하여 고구려의 건국신화로부터 일광감응과 하백의 모티프를 차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도모(都慕)’라는 이름이 ‘추모(鄒牟)’나 ‘주몽(朱蒙)’과 같은 이름의 다른 표기라고 하는 견해<sup>34)</sup>는 재고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왜냐하면 도모신화가 동명 신화와 같은 계통의 전승이라고 한다면, ‘도모’가 ‘동명’과 관련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 성격이 다른 ‘추모’나 ‘주몽’과 관련될 수는 없기 때문이다.

## V. 온조 · 비류 신화와의 관계

두루 알다시피 『삼국사기』 백제본기(百濟本紀) 시조 온조왕(溫祚王) 조에는 두 개의 건국신화가 실려 있다. 여기에서는 온조왕에 연루된 자료를 별건하기로 한다.

33) 장덕순 편, 『이규보작품집』, 형설출판사, 1981. p.87.

34) 이병도, 『한국 고대사 연구』, 박영사, 1976, p.469.

## [자료 9]

백제 시조 온조왕은 그 아버지를 추모(鄒牟) 혹은 주몽(朱蒙)이라고 이른다. 주몽이 북부여로부터 재난을 피하여 졸본부여(卒本扶餘)에 이르렀는데, 부여의 왕은 아들이 없고 딸만 셋을 두었었다. 주몽을 보고 비범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아서 둘째딸을 아내로 주었다. 얼마 안 지나서 부여왕은 죽고, 주몽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아들 둘을 낳았으니 맏이는 비류(沸流)라 하고, 다음은 온조(溫祚)라 하였다(혹은 주몽이 졸본으로 온 다음 월군(越郡)의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 두 아들을 낳았다고도 한다.).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이 와서 태자(太子)가 되자,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못할까를 두려워하여, 마침내 오간(烏干)과 마려(馬黎) 등 열 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떠났다. 백성들도 따라오는 이가 많았다.

드디어 한산(漢山)에 이르러 부아악(負兒嶽)에 올라가 가히 살 만한 곳을 보았는데, 비류는 바닷가에 가서 살려고 하였다. 열 신하가 간(諫)하기를, “생각하건대 이 하남의 땅은 북쪽으로 한수(漢水)가 돌리고 동쪽으로 높은 산악이 차지하였으며, 남쪽으로 비옥한 들판이 펼쳐지고 서쪽으로 큰 바다가 막히었으니, 필연적으로 험준하고 지형 상으로 유리한 것이 얻기 어려운 관국이라 여기에 도읍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라고 하였으나, 비류는 듣지 않고 그 백성들을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가서 살았다. 온조는 하남 위례성(河南慰禮城)에 도읍을 정하고 열 신하로 보익을 삼아서 나라 칭호도 십계(十濟)라 하였으니, 이것이 전한(前漢) 성제(成帝) 홍가(鴻嘉) 3년이였다.

비류는 미추홀의 땅이 습하고 물이 짜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었으므로 위례로 돌아와 보니, 도읍을 새로 정하고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았다. 드디어 부끄럽고 후회되어 죽어버리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까지 위례로 돌아왔다. 후일에 이르러 백성들이 즐겁게 따라왔다고 하여, 백제라고 나라 칭호를 고치었다. 그 집안 내력은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나왔기 때문에 ‘부여(扶餘)’로 성을 삼았다.<sup>35)</sup>

35)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溫祚王 條.

이것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전해지는 백제의 건국신화이다. 이 자료에는 백제의 건국주가 온조(溫祚)이고, 그는 주몽의 아들로 그의 형 비류와 함께 남하하여 나라를 세운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의 ‘온조 신화’는 그 자체가 백제 건국의 한 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sup>36)</sup>

그러나 온조를 백제의 시조로 하는 사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뿐이다. 특히 후자가 전자의 백제본기를 전사한 것이라고 본다면, 결국 온조를 백제의 시조로 하는 것은 한국 측의 사료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온조의 부계를 고구려의 시조 주몽(朱蒙)과 연결시킨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온조의 부계(父系)를 주몽으로 본 것은 백제의 동명 신앙(東明信仰)과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해 김부식이 백제에 존재했던 동명신앙을 고구려의 건국주인 주몽의 시호(諡號)인 동명성왕(東明聖王)과 연결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선 백제의 동명신앙에 대한 기록부터 검토하기로 한다.

[자료 10]

『해동고기』를 살펴보니, 혹은 시조 동명이라고도 하고 혹은 시조 우태라고도 하였다. 『북사』와 『수서』는 “동명의 후손인 구태가 있어 대방에 나라를 세웠다.”고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시조 구태를 언급하였다. 하지만 시조가 동명인 것은 사적이 명백하므로 그 나머지는 믿을 수 없다.<sup>37)</sup>

이 기록에 의하면, 백제 초기에는 동명묘를 시조묘로 판단했던 것은 명확하다고 하겠다.<sup>38)</sup> 그리고 실제로 “온조왕 원년 여름 5월에 동명왕묘(東

36) 김화경, 『온조신화 연구』 『인문연구』 4, 영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3, pp.121-144.

37) 『三國史記』 雜誌 第1 祭祀 條.

38) 최광식, 앞의 책. p.75.

明王廟)를 세웠다.”<sup>39)</sup>는 것도 부여의 시조였고, 또 이 시조로부터 자기들의 조상이 연원되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온조왕이 백제라는 나라를 세우자, 바로 그 원조(遠祖)라고 생각해오던 동명의 묘를 세우고, 제사를 지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원조 동명에 신앙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자료 11]

- ① 다루왕 2년 봄 정월에 시조 동명묘에 배알하였다. 2월에 남단(南壇)에서 천지에 제사지냈다.<sup>40)</sup>
- ② 구수왕 14년 봄 3월에 우박이 내렸다. 여름 4월에 크게 가물자 왕이 동명묘에 빌었더니 곧 비가 내렸다.<sup>41)</sup>
- ③ 책계왕 2년 춘정월에 동명묘에 배알하였다.<sup>42)</sup>
- ④ 분서왕 2년 춘정월에 동명묘에 배알하였다.<sup>43)</sup>
- ⑤ 비류왕 9년 여름 4월에 동명묘에 배알하였다. 해구(解仇)를 병관좌평으로 삼았다.<sup>44)</sup>
- ⑥ 계왕 2년 4월 시조 동명묘에 배알하였다.<sup>45)</sup>
- ⑦ 아신왕 2년 봄 정월에 동명묘에 배알하였다. 또 남단에서 천지에 제사지냈다. 진무(眞武)를 좌장(左將)으로 삼고 군사업무를 맡겼다.<sup>46)</sup>
- ⑧ 전지왕 2년 봄 정월에 왕이 동명묘에 배알하고 남단(南壇)에서 제사지냈으며, 크게 사면하였다.<sup>47)</sup>

39)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溫祚王 元年條.

40) 『三國史記』雜志 第1 祭祀條.

41) 『三國史記』百濟本紀 仇首王 14年條.

42) 『三國史記』百濟本紀 責稽王 2年條.

43) 『三國史記』百濟本紀 汾西王 2年條.

44) 『三國史記』百濟本紀 比流王 9年條.

45) 『三國史記』雜志 第1 祭祀 條.

46) 『三國史記』百濟本紀 阿莘王 2年條.

47) 『三國史記』百濟本紀 腆支王 2年條.

위의 기록들을 보면, 동명묘에 대한 제사는 왕의 즉위 다음 해에 이루어진 것이 여섯 번이었고, 또 정월에 행해진 것이 다섯 번이었다 이에 대해, 이노우에 히데오(井上秀雄)은 “농업신인 시조신을 제사하는 즉위의례가 신왕(新王) 즉위 2년 정월에 행해지는 것이 항례(恒例)였다고 하는 전승이 전해지고 있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였다.<sup>48)</sup> 이러한 추정은 얼마간의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동명묘에 대한 참배가 정월에 행해졌다고 하여, 동명을 농업신으로 파악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동명은 부여의 건국주로 활솥씨가 뛰어난 인물로 형상화되었으므로, 수렵과 가까운 존재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백제에는 동명 신앙에 대한 전통이 상당히 강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백제에 이와 같은 동명 신앙이 있다는 것에 착안한 김부식은, 부여의 시조였던 ‘동명(東明)’이라는 이름이 ‘동명성왕(東明聖王)’이라는 고주몽의 시호로 사용되면서, 온조왕을 고주몽과 연결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짙다고 하겠다. 이러한 상정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온조를 주몽의 아들로 기술한 위의 자료 9는 『삼국사기』의 편찬자인 김부식의 중세적인 합리주의 사고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결은 신화 상이나 신앙 상으로 보는 경우에는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백제의 건국신화는 부여의 시조 동명의 전승을 계승한 것이었으며, 이런 전승이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간 백제왕의 후손들 사이에 전해지던 것이 도모신화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조에는 온조 신화 이외에 우태(優台)를 아버지로 하는 비류(沸流) 신화가 실려 있으므로 이것도 아울러 살펴보기로 한다.

48)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 寧樂社, 1978. p.130.

## [자료 12]

또는 이르기를, 시조는 비류왕으로 아버지는 우태(優台)이며, 북부여왕 해부루(解扶婁)의 서손이다. 어머니 소서노(召西奴)로 졸본 사람 연타발(延陀勃)의 딸이고, 처음에 우태에게 시집가서 두 아들을 낳았는데, 맏이를 비류라고 하고, 지차를 온조라고 하였다. 우태가 죽자, 졸본에서 과부로 지냈다.

뒤에 주몽이 부여에서 용납되지 못하여 전한(前漢) 건소(建昭) 2년(BC 37) 2월에 남으로 내려와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세우고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으며, 소서노를 취하여 비로 삼았다. 그녀는 건국에 내조의 공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주몽의 총애가 특히 두터웠고, 비류 등을 마치 친아들과 같이 대우하였다.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예 씨(禮氏)에게서 낳은 아들 유류(孺留)가 찾아오자, 그를 태자로 세우고 왕위를 잇게 하였다.

이에 비류가 온조에게 말하기를, “처음 대왕이 부여에서 난(難)을 피하여 여기로 도망하여 오자, 우리 어머니께서 가재(家財)를 기울여서 도와주어 방업(邦業)을 이룩하는데 그 근로가 많았다. 대왕이 하늘로 올라가자, 나라는 유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한갓 여기에 있어 흑과 같이 답답할 뿐이다.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땅을 택하여 따로 나라의 도읍을 세우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아우와 함께 무리를 거느리고 패수(溟水)와 대수(帶水)의 두 강을 건너 미추홀(彌鄒忽)에 가서 살았다고 한다.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는 모두 이르기를 “동명(東明)의 후손에 구태(仇台)라는 이가 있어 어짊과 신뢰가 돈독하였다. 처음 대방(帶方) 옛 땅에 나라를 세웠는데 한의 요동 태수 공손 탁(公孫度)의 딸을 맞이하여 그 아내를 삼았다. 드디어 동이(東夷)의 강국이 되었다.”고 한다. 어느 편이 옳은지 알지 못하겠다.)<sup>49)</sup>

이 자료는 백제의 건국에서 온조를 시조로 받들지 않고, 비류를 건국주로 하는 계통의 왕실이 존재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비꾸어 말하면 미추홀 중심의 왕권 전승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온

49)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溫祚王 條.

조 중심의 왕력(王歷)으로 되어 있어, 비류를 건국주로 하던 세력의 실상을 파악할 수 없다.

단지 이 신화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비류를 북부여의 해부루왕 서자였던 우태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명을 시조로 하여 동명묘를 세웠던 온조 집단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는 세력이었다.

그러나 김부식은 이들과 온조 집단 및 고구려를 세웠던 주몽 집단을 혈연적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고안해낸 것이 해부루의 서자(庶子) 우태를 친아버지로 하고 고구려의 건국주 주몽을 의붓아버지로 하는 방안을 고안해냈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다시 말해 북부여왕 해부루의 서자 우태가 죽자, 이번에는 비류의 어머니 연타발이 부여에서 망명해온 주몽에게 재가를 한 것으로 기술함으로써 이들 상호간의 혈연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였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비류 신화는 일본에 전해지는 도모신화와는 관계가 먼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도모 신화와 비류 신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 VI. 맺음말

이제까지 일본의 『속일본기』에 전해지는 도모 신화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 건국신화의 원형을 재구해 보았다.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에 전해지는 도모 신화는 백제왕의 후손들이 보전하던 것이었다. 따라서 이것은 사서(史書)나 전문(傳聞)에 전해지던 것이 아니라, 후손들 사이에 전해지던 조상의 시조 신화였고, 또 백제의 건국신화였다고 보았다.

둘째 이러한 백제 건국신화의 원형을 재구하기 위해서, 본고에서는 중국의 『수서(隋書)』에 남아 있는 백제 건국신화 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이것이 ㉠ 비정상적 탄생과 ㉡ 고난과 고난의 극복, ㉢ 시련과 시련의 극복, ㉣ 건국, ㉤ 능력의 인정, ㉥ 나라의 융성 등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의 도모 신화도 이와 같은 형태를 가졌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였다.

셋째 그리고 후한(後漢) 시대에 지어진 『논형』에 전하는 부여의 동명 신화를 고찰함으로써, 백제의 건국신화도 동명 신화와 같은 계통의 자료라는 상정을 하였다.

넷째 이제까지 『논형』의 동명 신화가 고구려의 주몽신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주몽신화는 일광감응과 난생 모티프가 게재되어 있어, 이것은 만주 일대에 살고 있던 코리야족과의 접촉으로 인해 바뀌었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백제 건국신화와 주몽신화는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삼국사기』에 전해지는 백제의 온조 신화에는 온조가 주몽의 아들로 서술되어 있다. 백제의 왕들은 즉위한 다음 해 정월에 동명묘에 참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즉위 의례와 시조신 숭배가 겹치는 신앙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런 신앙에 착안한 김부식은 백제의 동명을 주몽의 휘호인 동명과 결부시켜, 주몽의 아들로 온조를 기술하였을 것이란 상정을 하였다.

여섯째 『삼국사기』 백제본기 시조 온조왕 조에 이설(異說)로 전해지는 비류 신화는 미추홀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세력의 왕권 신화였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일본에 남아 있는 도모신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논의는 일본에 전해지는 자료라고 하여 그 신뢰성을 문제로 삼아 논의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 이들 자료에 대한 보다 치밀한 검토를 통해서 백제사를 재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을 첨언해둔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三國史記』

『論衡』

『北史』

『隋書』

『魏書』

佐伯有清, 『新撰姓氏錄の研究(本文篇)』, 東京, 吉川弘文館, 1981.

黑板勝美 編, 『續日本記(後篇)』, 東京, 吉川弘文館, 1979.

### 2. 논문

김정배, 「예맥족 연구」 『백산학보』 5, 백산학회, 1968.

김화경, 「온조 신화 연구」 『인문연구』 4, 영남대인문과학연구소, 1983.

\_\_\_\_\_, 「건국신화의 전승경위」 『한국문학사의 쟁점』, 집문당, 1986.

노명호, 「백제의 동명신화와 동명묘」 『역사학연구』 10, 전남대사학회, 1981.

최래옥, 「현지조사를 통한 백제설화의 연구」 『한국학논집』 2 한양대한국학연구소, 1982.

松原孝俊, 「朝鮮族譜と始祖傳承(上)」, 『史淵』 120, 九州大學文學部, 1983.

井上秀雄, 『古代朝鮮史序說』, 寧樂社, 1978.

Raglan, L. The hero of tradition, The Study of Folklore, Englewood Cliffs, 1965.

### 3. 단행본

김정학, 『한국 상고사 연구』, 범우사, 1990.

김화경, 『한국의 설화』, 지식산업사, 2002.

\_\_\_\_\_, 『한국 신화의 원류』, 지식산업사, 2005.

문정창, 『광개토대왕훈적비문론』, 백문당, 1977.

장덕순 편, 『이규보작품집』, 형설출판사, 1981.

이복규, 『부여·고구려 건국신화 연구』, 집문당, 1998.

이종욱, 『한국사의 1막 1장 건국신화』, 휴머니스트, 2004.

최광식, 『백제의 신화와 제의』, 주류성, 2006.

今西龍, 『朝鮮古史の研究』, 國書刊行會, 1980.

三品彰英, 『神話と文化史』, 平凡社, 1971.

Abstract

## A Study on the Foundation Myth of Baekje

Kim, Hwa-Kyung

The foundation myths of Baekje are Onjo Myth in *Samguksagi*(三國史記), Gutae(仇台) Myth in *Suseo*(隋書) and *Buksa*(北史) of China, and Domo(都慕) Myth in *Sokilbongi*(續日本紀) of Japan. Assuming that Domo Myth is a prototype under the fact that Domo Myth is a material transmitted among the Kings of Baekje, this thesis is to try to reconstruct the original form of foundation myth of Baekje by using the materials of China.

Consequently, this thesis examines out the fact that the foundation myth of Baekje consists of six paragraphs in its contents in a consecutive order: unusual birth, sufferings and overcome of suffering, hardships and overcome of hardships, foundation of a nation, recognition of competence, prosperity of the nation. Additionally, this thesis finds out that this Domo Myth is of a same story as Dongmyung Myth of Puyo.

On the other hand, it is found out that the Jumong Myth involved in the foundation of Koguryeo is of a same story as Dongmyung Myth of Puyo, and also that when the governing group moved south the Jumong myth was changed into born-of-egg tale influenced by Koryaks, one of the Paleo Asiatic tribes. And it is assumed that Onjo and Biryu Myth of *Samguksagi* were changed by its editor, Kim Bu-Sik's medieval rational way of thinking. Precisely speaking, the former described Onjo as Jumong's son on the ground that not only Kings of Baekje thought of Onjo as a founder of Baekje but also they, building up Dongmyungmyo(東明廟), paid their respects at it. The latter was described as one of the methods to connect the royal family's blood line to PukPuyo.

Key Words : Foundation Myth, Onjo Myth, Dongmyung Myth, Domo Myth, Jumong Myth, *Samguksagi*.

김화경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주소 : 712-749 경북 경산시 대동 영남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전화번호 : (학교) 053-810-2121, (핸드폰) 010-9812-2222

전자우편 : mythos103@naver.com

이 논문은 2012년 3월 15일 투고되어  
2012년 4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2년 4월 20일 게재 확정됨.